



임무영 목사의 고요한 아침의 편지

“식사기도가 신앙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식사를 하기 전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십니까? 너무 생뚱맞은 질문 같기는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식사 때 기도하지 않고 식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론 너무 배가 고파서 감사기도 드리는 것을 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서라도 식사전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아 기도 자체를 해야한다는 생각조차 품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직장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나왔을 때, 함께 어울려 있는 사람들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음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어색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심지어 짧은 점심시간, 혼자 조용히 차 속에서 또는 공원에서 식사를 할 때도 멧적은 마음에 포크를 들 때가 있습니다.

혹시, 어린 자녀를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은 어떠십니까? 아이들과 집에서 식사하실 때 부모님은 기도하지 않는데, 자녀들에게만 “OO야! 기도해야지? 자. 손 모으고. 하나님!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라고 요구하시지는 않으신지요? 그나마 집에서는 아이들에게 이렇게나마 훈련을 하는데 혹시 식당에서 식사할 때는 어떠십니까?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한 가정과 함께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차려진 음식을 놓고 식사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초대받은 가정 식구들이 손을 잡는 겁니다. 사실 좀 놀랐습니다. 분위기가 저희 가정도 손을 잡아야 할 것 같아서 잡았습니다. 모두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손을잡고 식사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처음 경험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식당에서도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네. 목사님”

성경에서 ‘먹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창세기의 선악과를 먹는 이야기부터 예수님 스스로 ‘생명의 떡, 빵’이라 명명하시면서 자신을 먹어야 한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떡을 떼어주시는 순간 비로서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신앙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 여정에 믿음을 명사로 인식하고 동사로 활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명사입니다. 중요한 주제입니다. 기도의 종류,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게 되면

신앙은 여전히 명사로 잔류하게 됩니다. ‘영생’ ‘빛과 소금’ 참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상징적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존재와 가르침을 그저 압축적인 명사로 규정하게 되면 단순한 도덕적 덕목으로 축소되기 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식사 전 기도는 우리 신앙을 ‘동사화’하는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장 바키스트 시메옹 샤르댕이란 작가가 그린 <식사전 기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속에 어머니의 고백이 들립니다. “식사할 때 꼭 기도해야 한단다. 먹는다는 것은 소중한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굶어 죽을 거야.”

우리는 잘 압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바람이 불지 않는데, 내 힘만으로 곡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요. 스스로 밭을 매고 물을 준 것보다 거기 이미 토양이 있고, 햇빛이 쏟아지고, 때 맞춰 비가 내리고, 벌레들이 흙을 부숴 주는 그 노력이 훨씬 큰 에너지입니다. 그러니 음식을 먹을 때 자신을 노력을 내세우는 대신 이를 가능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렸을 때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은 사람은 부모님께도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식사기도부터 시작해 보세요. 식당에서 식사전 기도하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하게 느껴진다면 우리 주님도 우리를 창피하게 여기실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식당에서 어디서 음식을 드시든, 장소와 상관없이 은혜를 베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는 것에서부터 신앙은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예배 마치고 Fellowship Hall에서 점심 드실 때 잊지 마세요. 식사기도요....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연결하는 브릿지 교회 담임목사 임무영 드림



브릿지교회



세상을
그리스도
께로
연결하는 교회

담임목사: 임무영
Youth: Janice Kim
유/초등부: Mike Brick, Tara Der
유치부: 이은신 전도사

41 S. Rohlwing Rd.
Palatine, IL 60074
Tel: 260-602-9061

www.chicagobridgechurch.org

완벽한 사랑이 머무는 곳
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
고자 몸부림 치는 교회!

갈등과 상처가 전혀 없는 곳
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용서를 실천
하고자 몸부림 치는 교회!

완벽한 하나됨이 이루어
진 곳은 아닐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
게 하심을 힘써 지켜내
기 위해 몸부림 치는 교회!

항상 은혜로운 말씀은 아닐
지라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을 삶의 열매로 남기기 위
해 몸부림 치는 교회!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
을 그리스도께로 연결
하기 위해 존재하는 교회!

바로 그 브릿지 교회로
여러분을
초 / 대 / 합 / 니 / 다



교회비전

1. 예배 감격을 회복하는 교회
2. 성도의 교제로 따뜻한 교회
3. 구제와 섬김에 솔선수범하는 교회
4. 하나님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

예배인도: 임무영 목사

사도신경.....다같이

여는찬양.....브릿지 찬양팀

대표기도.....이희철 장로

봉헌특송.....다같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 369장)”

헌금기도.....임무영 목사

평화의 인사.....다같이

교회소식.....임무영 목사

성경봉독.....임무영 목사
야고보서 5장 13-18절 (신약, P.377)
(James 5:13-18)

설교.....임무영 목사
〈“채움” 설교 시리즈 3〉
“믿음의 기도로 충만하라”
(Let us be filled with the prayer offered in faith)

* 설교후 찬양.....다같이
“비 준비하시니”

* 축도.....임무영 목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1. 환영: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2. 공지사항

- a. 5월 운영위원 회의록 열람 (교회 정문입구 비치)
- b. 브릿지 교회 요람 배부 -가정당 1부씩 (문의: 배경은)
- c. 브릿지 교회 홈페이지 오픈: www.chicagobridgechurch.org
- d. 온라인 현금 안내: Zelle 이용(Chase Bank)
(수신 이메일: Thebridgechurch.chicago@gmail.com)

3. 수목 바이블 드라마 (말씀묵상훈련)

- a. 기간: 5/25(수)-26(목), 6/1(수)-2(목) / 6/(8)수, 7:30pm
- b. 주제: “사도행전, 끝나지 않는 여행”
- c. 대상: 브릿지 성도 및 함께 참여하고 싶은 분 모두
- d. 참여방법: Zoom (카톡공유: 초대장 배부)
- e. 신청: 예배 후 sign up (로비)
- f. 회비: \$30.00 (개근하신 분들께는 100% refund)

4. 예배및 훈련

- a. 토요일새벽예배 : 5/21(토) 6am, 현장및 Zoom
- b. 1부예배(봉사자 예배): 10:30am/ 소예배실
- c. 선교주일: 5/22(주일) 12pm
- d. 졸업예배: 5/29(주일) 12pm (졸업예배 리허설은 추후 공지)

5. 예배 및 봉사위원

- a. 친교: 김창걸 / 다음주: 박철수, 표춘자
- b. 다음 주 기도: 표춘자
- c. 감사: 한마음 톨립행사를 위해 기도와 물질, 섬김으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요람제작을 위해 수고해 주신 분들
- d. 5월 안내및 헌금위원: 조희선, 위경미 (안내) / 위부통, 위경미 (헌금)

6. 기도제목

- a.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임하기를
- b.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그리고 이민교회를 위해
- c. 환우 성도님들을 위해 (전성민, 이복희, 김창걸, 고지은, 박양자)
- d. 선교사님들 사역 (인도네시아: 샤론학교, 필리핀: 정재영 선교사, 멕시코: 최희영 선교사, 미얀마: 리안목사, 실버선교)
- e. 담임목사와 운영위원, 팀장및 사랑방 리더자들 (방지기, 부방지기)을 위해

7. 지난 주 출석: 어른(72), 다음세대(10)



예배시간 The Bridge Fellowship Church of Chicago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10:30 am	소예배실	
주일예배 2부	12:00 pm	본 당	
말씀묵상훈련(수요일)	7:30 pm		
새벽기도(화-금)	6:00 am		
새벽예배(토)	6:00 am		
다음 세대 예배	영 아 부	12:00 pm	Nursery
	유 치 부	12:00 pm	Room 14
	유 / 초동부	12:00 pm	Room 12
	Youth Group	12:00 pm	소예배실